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 미사 독서: 이중재 프란치스코, 전은숙 글라라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주 미사 독서: 강후길 프란치스코, 황지혜 레지나	봉헌금: \$ 199 교무금: \$ 0
금주 미사 복사: 우명희 카타리나	매일미사: \$5 연미사 봉헌: \$30
다음 주 미사 복사: 우명희 카타리나	감사헌금(조남석): \$50
금주 미사 해설: 김보미 로사	감사헌금(황성필/성인영): \$50
다음 주 미사 해설: 유지원 카타리나	-----
반	주: 조은영 베다, 황지혜 레지나, 강동현
회	계: 황성필 요한,
친교실 정리: 1 구역	합계 : \$ 334
	봉헌봉사: 김지원 카린
	다음주 봉헌봉사: 성인영 마리스텔라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친교/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남성교우 기도모임	격주 금요일 (4 월 5 일 저녁 8:00, 사제관)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 시 (장소: club.catholic.or.kr/thekccm 게시판 참고)
교리 모임	미정
골프 모임	동계 휴식기
테니스 모임	매주 일요일 (Nielsen Tennis Stadium, 시간: 페이스북클럽 및 홈페이지 참고)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증거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이는 부활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려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곧 부활이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돌을 치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병아리가 달걀의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거인의 정원’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거인이 집을 비운 사이 어린이들이 그의 정원에서 날마다 뛰어놀았습니다. 7년 만에 집에 돌아온 거인은 자기의 정원이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서 정원 둘레에 높은 담을 쌓았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그 정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꽃들도, 새들도 더 이상 어린이들을 볼 수가 없어서 사라져 버렸고, 그 정원은 일 년 내내 거울이만 하였었습니다. 거인은 봄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봄을 애달게 기다렸습니다.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그 정원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거인이 창문을 열고 봄을 반기려고 하는데, 뜻밖에도 그 정원에서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담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어린이들이 놀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없으면 봄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인은 그제야 정원 둘레에 친 높은 담을 헐어 버리고 언제든지 아이들이 놀러 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삶의 울타리를 높이 세우고 그 속에 자기를 가두는 사람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당신을 가둔 무덤의 돌을 치우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부활의 첫걸음은 우리를 가두는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주임 신부 유성모 요셉 (608) 293-1114 사목회장 이중재 프란치스코 (608) 772-5701  매디슨한인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Madison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kccm Facebook 그룹 Facebook 검색에서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검색 이메일 kccmwi@gmail.com 2013년 3월 31 일	
<제 1 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0,34 ㄴ.37 ㄴ-43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3,1-4<또는 1 코린 5,6 ㄴ-8>	
화답송	◎ 이 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날, 이 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 ○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좋으신 분을,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여. 이스라엘 가문아 일컬어라, “영원하신 그 사랑” ◎ ○ 주님의 오른손이 큰 일을 하셨도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일으키셨도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보리라, 주님의 장하신 일을 이야기 하고자◎
부속가	파스카 희생 어린양을 모두 다 찬미하세. 어린양이 양들을, 무죄하신 주님, 죄인들을 구원하셨도다. 생명 죽음 싸움에서 돌아가신 생명 주님, 살아 계시며 다스리신다. 말하여라, 마리아. 말하여라, 마리아,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 무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목격자 천사들, 수의를 난 보았네. 나의 희망이신 그리스도, 갈릴래아로 먼저 가셨네. 주님 정말 부활하심 저희 믿사오니, 자비를 베푸소서, 승리자 임금님.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파스카 제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사이다.◎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9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썼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파스카 제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지내사이다.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시작: 133 봉헌: 136 성체: 131 파견: 135	



부드럽고 따뜻한 믿음

부모가 자녀에게 ‘애야, 난 널 믿는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난 당신을 믿어.’라고 말합니다. 머리로 따지고 계산하고 분석한 결과 신빙성이 있기에,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성적 사고와 분석을 훌쩍 뛰어 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성적 판단에 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 차원을 내포하면서 그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경지엔 따뜻함이 훨씬 묻어납니다. 부드럽고 활기차고 생명에 넘친 기운이 느껴집니다. 대단히 밝고 건강한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무덤에 들어가 보고 믿었다는 믿음도 바로 이 차원의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아마포와 얼굴을 찢던 수건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아함에 빠져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억지로 믿음을 강요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한편으론 너무 쉽게 부활을 생각하며 믿음 속으로 빠져드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가 보고 믿었다는 그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면서도 도망가고 배신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심한 좌절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의 그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지고, 감싸 안고, 도닥거려 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희망이 샘솟고, 위안과 평화의 힘이 온몸을 감싸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란 것을 머리로,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풀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학 계산하듯 똑 떨어지는 셈법을 들이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관적으로, 온몸을 통해 알아듣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알아듣는 이 믿음을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어리석음의 소치도 아니고 광신적인 맹목적 행동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존재의 깊이깊은 곳을 건드리는 체험입니다. 이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면서도 이성의 차원을 뛰어넘는 알아들음이 일어나는 차원이고, 인간을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차원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부조리와 비애를 묵도하면서도 그 속에 함몰되어 버리지 않고, 그 모두를 끌어안고 솟구쳐 오르는 놀라운 비상이 일어나는 차원입니다. 하여 인간이 참으로 겸손해지고 순박해지고 고요해집니다.

제자가 보여준 이 믿음의 차원을 우리도 일궈내고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은 비범하고 특출난 사람만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소박하기 짝이 없는 서민들이 가장 잘 가꿔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세울 만한 것 하나 없는 그 텅 빈 영혼 위에 새로운 희망이, 새 생명의 기운이, 새 위로의 숨결이, 눈처럼 내려 앉아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하나 아름다운 서민들은 그 위로와 생명의 기운을 온몸으로 감지하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하여 참으로 부활의 세상이, 새로운 세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유시찬 보나벤투라 신부 / 예수회

† 부활 삼종 기도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공지사항

1.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2. 성삼일 예식과 부활절 미사를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고 참석해주신 전례부, 성가대, 독서단,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Rice Bowl 모금에 적극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교무금>

매월 첫 주일(4월 6일)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현재 메디슨 공동체 총 가구수(학부생 제외)는 55 가구임에 비해 교무금 실제 납부 가구수는 11가구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납부율-20%) 교무금 납부는 신자들의 의무인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무금 납부: 황성필 회계사무위원). 교무금 납부 봉투 및 교무금 약정서는 친교실 회계 담당 테이블에 놓여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독서단 모집(계속)>

독서 봉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은숙 글라라 자매님 (esjeon95@mac.com) 혹은 김보미 로사 자매님 (bomi921@gmail.com)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적정리(계속)>

교적 정리가 진행중입니다. 성당 임구에 비치된 교적 양식을 작성하셔서 교적을 담당하는 **홍진국 클레멘스형제**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의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메일로 (jkhong2350@yahoo.com) 보내주셔도 됩니다.

<성가대 모집(계속)>

성가대원과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교우분들께서는 지휘자 한영주리드비나 (lildwinahan@gmail.com) 에게 문의하시거나, 미사전후에 지하 Music Room 에 직접 들려주셔도 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남성교우 기도모임(계속)>

공동체의 남성교우 기도모임에 참여하세요. 격주로 모여 다함께 묵주기도 바치고 묵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음 모임은 **4월 5일 (금) 저녁 8시 사제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신부님 또는 홍진국 클레멘스 (jkhong2350@yahoo.com) 형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